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정서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 윤 경

(연세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남성의 아내를 대상으로 남편의 정서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부부적응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남편이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남편의 신체적 폭력이 중단되었다고 응답한 아내들의 설문 77개를 구조방정식의 PLS(Partial Least Square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71%인 55명이 조사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남편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할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정서적 폭력과 아내의 우울의 관계에서 부부적응과 수동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수동적 대처방식의 하위유형 가운데 회피 방식은 정서적 폭력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뿐 아니라 부부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 피해 아내가 부부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피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정서적 폭력, 우울, 부부적응, 대처방식,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1. 서 론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상당수 행위자들의 신체적 폭력이 중단되거나 감소했다는 결과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이정연, 2003; 김재엽, 2007; Gondolf, 2004; Hendricks, Werner, Shipway and Turinetti, 2006). 하지만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성공을 신체적 재폭

* 이 논문은 저자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2009. 02)의 일부를 축약한 것임.

력 여부로 평가하거나 행위자인 남편의 보고에 의존함으로써 피해 아내의 관점에서 폭력¹⁾과 관련된 다른 경험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Gondolf, Heckert and Kimmel, 2002).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아내에 대해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정서적 폭력은 그 중 하나이다. Galtung(2000; 김홍미리, 2006 재인용)이 언급한대로 폭력이 행사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행위나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적어도 폭력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대신하여 비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Johnson(1995)은 만일 정서적 폭력을 통해서 통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면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정서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영향도 신체적 폭력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대다수의 가정폭력 연구들이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구분하지 않거나 신체적 폭력만을 다루어서 신체적 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남편의 정서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부정적이고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피해자 조사 연구들(Follingstad, Rutledge, Berg, Hause and Polek, 1990; Kent and Waller, 1998; Dutton, Goodman and Bennet, 1999; Coker, Smith, Bethea, King and McKeown, 2000; Dienemann, Boyle, Baker, Resnick, Wiederhorn and Campbell, 2000)은 정서적 폭력의 영향이 신체적 폭력의 영향보다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미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들은 정서적 폭력만으로도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 불안, 공포 등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남편들의 신체적 폭력이 중단되었다고 해도 정서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면(최선령, 2001; 여성부, 2007; Gondolf et al., 2002; Gregory and Erez, 2002) 실질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남편의 신체적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위협과 협박이 대치되는 것으로는 남편의 폭력이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내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서적 폭력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폭력의 개념 정의와 조작화가 어렵고, 법적인 개입의 사유가 되지 못하는 등(Straka and Montminy, 2008)의 제한점으로 인해 정서적 폭력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치료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남편의 신체적 재폭력으로 인한 고소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추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이후에 남편의 폭력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였고 아내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남성들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의 경험을 조사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기존의 가정폭력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서적 폭력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들을 찾아 개입의 함의를 찾고자 한다. 먼저,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라는 맥락에서 볼 때 남편의 폭력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Schumacher and Leonard, 2005), 이 때 부부관계의 질적, 양적 측면은 아내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

1) 여기에서 폭력은 남편이 행사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거나 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Whisman, 2001). 또한, 폭력 피해 아내들은 폭력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을 재구조화하고 재구성하여 그 의미를 재정의 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으며(Lempert, 1997), 폭력 상황과 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들의 대응하는 태도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즉,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결과는 폭력 상황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아내가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Dempsey, 2002)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경우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남편의 정서적 폭력과 아내의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둘의 관계에서 부부적응과 대처방식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후의 남편의 폭력 행동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이 어떠한지를 피해 아내의 경험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정서적 폭력을 예방하고 정서적 폭력 피해 아내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관점

(1) 부부불화-우울 이론(Marital Discord Model of Depression)

부부불화-우울 이론은 부부간 불화가 기혼자의 우울에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Beach, Sandeen and O'Leary, 1990) 부부적응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비록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부부관계는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은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기혼자들의 우울은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결혼한 관계라는 특성에 주목하여서 부부불화가 우울의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Whisman, 2001; Hollist, Miller, Falceto and Fernandes, 2007).

부부불화와 우울 모델에서 부부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거나 둘째, 사회적 지지와 대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의 부재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부불화가 직접적으로 우울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적 자원이나 개인의 대처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우울을 가져올 수 있다.

(2) 스트레스-대처 이론(Stress and Coping Theory)

남편의 정서적 폭력은 아내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이때 아내의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Lazarus와 그의 동료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스트

레스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그에 의해 평가되는 환경과의 관계이며 대처는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라고 정의된다(Folkman and Lazarus, 1985).

대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중심의 대처와 감정 중심의 대처이다. 문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나 원인을 바꾸려는 노력이며, 감정 중심 대처는 상황과 관련이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줄이거나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Folkman과 Lazarus(1980)는 문제 중심의 대처방식은 개인이 직면한 상황을 변화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할 때보다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더 자주 사용되며, 감정 중심의 대처방식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지할 때 더 자주 사용된다고 하였다. 비록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지만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 중심의 대처를 하게 되지만, 남편의 폭력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감정 중심의 대처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1) 정서적 폭력

본 연구에서 정서적 폭력은 이성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아내폭력의 한 유형으로 제한하여 사용된다.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개념 정의에 있어서 연구자들 간에 뚜렷한 합의나 통용되는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정서적 폭력(Emotional abuse),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abuse), 비신체적 폭력(Nonphysical violence) 등으로 표현하거나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일해서 정서적 폭력²⁾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동안 가정폭력 연구자들은 정서적 폭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 폭력의 범주를 도출해 내거나 (Follingstad et al., 1990; Sackett and Saunders, 1999),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적용하여 요인을 분석해 내었다(Straus, 1979; Tolman, 1989; Marshall, 1992; Tolman, 1999; Gondolf, et al., 2002; Strauchler, McCloskey, Malloy, Sitaker, Grigsby and Gillig, 2004).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적 폭력의 범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서적 폭력을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비신체적 폭력으로서 언어적 폭력, 가해협박, 행동통제를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폭력은 영어 표현에서 abuse, aggression, violence, maltreatment 등이 쓰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폭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정서적 폭력의 범주

연구자	정서적 폭력의 범주
Follingstad 등 (1990)	폭력협박, 조롱, 질투, 결혼관계에 대한 협박, 구속, 상대방의 물건손상
Sackett와 Saunders (1999)	조롱, 비난, 무시, 통제
Gondolf 등 (2002)	언어폭력, 행동통제, 협박
Strauchler 등 (2004)	모욕과 비난, 통제, 감시
Straus (1979)	언어폭력, 상징적 폭력(협박)
Marshall (1992)	폭력협박, 통제, 무관심, 감시, 불신, 무시, 고립
Tolman (1989)	언어폭력, 행동통제
WHO (2005)	언어폭력, 가해협박, 행동통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내폭력 피해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심리적 특징은 우울이다(홍창희·박유숙, 2001; Carlson, McNutt, Choi and Rose, 2002; Rayburn, Wenzel, Elliott, Hambarsoomians, Marshall, and Tucker, 2005). 정서적 폭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우울이 대표적인 심리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몇몇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다른 유형보다도 정서적 폭력이 우울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utton 등(1999)은 가정폭력으로 법적 도움을 요청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의 유형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의 모든 유형이 우울과 스트레스증후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에서도 정서적 폭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 상해 정도가 심할수록 스트레스증후군은 증가하였으나 우울은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서 신체적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이 우울에 더 영향력이 있는 변수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Kocot과 Goodman(2003)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폭력은 스트레스증후군과의 관계만 유의한 반면, 정서적 폭력은 우울과 스트레스증후군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폭력과 우울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Dienemann 등(2000)은 병원에서 우울진단을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폭력의 정도와 우울의 정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oker 등(2000)의 연구에서도 병원 진료를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 중 14%가 신체적 폭력이 배제된 정서적 폭력만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정서적 폭력 경험자 중 70%는 정신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tanza, Vogel 그리고 Marshall(1995)도 신체적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피해 여성의 우울증상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신체적 폭력과 관계없이 정서적 폭력만으로도 우울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부부적응

부부적응(marital adjustment)은 부부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부부관계의 질을 설

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부적응을 연구한 초기 학자들인 Burgess와 Cottrell(1939)은 적응을 “두 인격체가 단순히 합쳐지거나 어느 한 쪽에 흡수되는(submerge) 것이 아니라 상호 만족과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보완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Spanier(1976)는 부부적응을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관계로 보았고, 결혼생활에서 차이점, 배우자간의 긴장감, 결혼만족도, 부부결합,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적응의 개념을 Spanier가 정의한 바를 따라 일상의 부부생활에서의 전반적인 부부관계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부생활에서 의견합의, 부부응집, 부부관계 만족, 부부간에 정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부적응은 기혼여성의 우울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Whisman(2001)은 부부적응 관련 연구 26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부부관계의 질이 남편과 아내의 우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부부만족과 우울의 관계가 일반인들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Whisman과 Bruce(1999)는 우울증상이 없는 일반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1년 후에 부부만족도와 우울증 발병율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부관계가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다 우울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2.7배 높으며, 부부불만족은 우울 발병 위험에 29.5%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불만족과 우울의 관계는 인구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였으며, 성별이나 이전의 우울증 발병력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ach, Katz, Kim 그리고 Brody(2003)의 연구에서는 일반 부부들을 대상으로 1년 간격으로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부 각각 느끼는 부부관계의 질은 두 조사 시점 모두에서 각자의 우울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상대 배우자의 우울증상의 예측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부부가 비슷하여서 Whisman(2001)의 연구결과와 달리 남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남편의 폭력과 부부적응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많은 횡단연구들에서는 부부불만족이나 부부불화를 선행변수로, 아내폭력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부부불화가 아내폭력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Schumacher, Slep, 그리고 Heyman(2001)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의사소통 패턴, 부부적응, 애착이 정서적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Stith, Green, Smith 그리고 Ward(2008)는 가정폭력과 부부만족/불화와 관련된 32편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가정폭력과 부부만족 또는 불화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에 가정폭력이 부부만족이나 부부간 불화와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Stith 등(2008)은 이에 대해서 분석 대상인 연구들이 모두 횡단적 연구들이기 때문에 낮은 부부만족도나 높은 부부불화가 폭력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폭력의 결과로 부부만족도가 낮아지고 부부간 불화가 커지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종단적 연구결과들은 부부불화가 아내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아내폭력이 결과적으로 부부불화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O'Leary, Malone, 그리고 Tyree (1994)는 결혼 초기 부부들

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의 발생과 부부관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으로서는 부부관계의 특성이 작용하였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부부관계의 특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부부불화가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을 야기한다는 것에 반박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Mason과 Blackenship(1987)의 연구에서도 아내의 남편폭력 원인은 개인 특성과 관계특성 모두에 의해 설명되지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인특성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부부관계의 질이나 만족도가 아내폭력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chumacher와 Leonard(2005)는 63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초, 결혼 1년 후, 결혼 2년 후의 세 시점에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부부적응 간의 관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결혼 초기 부부적응은 1년 후 남편의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남편의 결혼 초기 언어적 폭력은 1년 후 아내의 부부적응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언어적 폭력이 부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편의 정서적 폭력이 부부불화보다 선행하여 발생하며, 이것이 반복되고 장기화됨으로써 부부관계의 질을 저해한다는 가정을 갖고 정서적 폭력과 부부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3) 대처방식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할 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폭력 피해여성의 경우 남편의 폭력의 빈도와 정도, 부부관계 유지 기간, 이용 가능한 자원, 사회적 지지, 이전에 사용한 대처 전략의 효과 등에 따라 사용하는 대처 전략이 달라진다(Waldrop and Resick 2004). Waldrop과 Resick(2004)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대처방식에 관한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서 폭력적인 관계에서 여성은 회피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폭력의 정도와 빈도가 심해지면 이런 관계 떠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헌신정도, 이용 가능한 자원의 정도, 친구와 가족, 경찰 등 잠재적인 원조 자원의 보유 여부가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데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어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가는 폭력 피해여성의 우울 등 정신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Calvete, Corral, 그리고 Estévez(2008)는 배우자의 폭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정서적 폭력의 경험은 문제해결이나 감정의 표출과 같은 능동적 대처방식과 회피, 부인 등의 수동적 대처방식 모두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여성일수록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yburn 등(2005)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은 회피 대처방식 및 우울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문제중심의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회피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여성들과 달리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처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반면에 Kocot과 Goodman(2003)은 그들의 연구 대상자들인 폭력피해 여성이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우울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Kocot과 Goodman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 Fine(1992)의 연구를 인용하여 자원이 제한적이거나 사회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여성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정신건강에 비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수동적인 대처방식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만 문제중심의 대처방식은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처방식은 개인에게뿐 아니라 부부관계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Bouchard, Lussier, Wright 그리고 Richer(1998)는 대처방식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갈등 상황에서 남편은 부인(denial)하는 방식을, 아내는 거리두기와 회피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모두 문제를 잊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회피적 대처방식은 모두 부부만족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반면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의 종단적 연구에서는 아내의 부인하는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부부만족도를 증가시켰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radbury, Fincham, 그리고 Beach(2000)는 부부간 상호작용 패턴인 요구와 철회가 부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은 부부 중 하나가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구하며 비판과 잔소리를 하면 배우자는 대화와 논쟁을 회피하고 직면하는 것을 철회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요구가 많아질수록 상대방은 더 회피하게 되고, 회피하는 것은 또 다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여에 대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결국 부부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Babcock, Waltz, Jacobson 그리고 Gottman(1993)이 폭력부부의 경우 남편이 요구하고 아내가 철회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장문선과 김영환(2003)의 연구에서는 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정상집단과 우울집단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회피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 연구에서 회피적인 소극적 대처방식은 낮은 부부관계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폭력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결과를 폭력 피해 아내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 연구질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정서적 폭력은 아내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남편의 정서적 폭력과 아내의 우울의 관계에서 부부적응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셋째, 남편의 정서적 폭력과 아내의 우울의 관계에서 아내의 대처방식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아내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남성들의 아내들이다. 자료수집³⁾을 위해 전국 65개 가정폭력 상담기관에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남성들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추적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8월부터 동년 9월까지이며 총 116개의 설문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적 폭력의 순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집된 설문 가운데 남편이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수료 후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116개의 설문 중 신체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 36개를 제외하였고, 나머지 설문 가운데 주요 변수에 대한 결측치가 많은 사례 3개를 제외한 총 77개의 설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남편들이 프로그램 이수 후 설문조사 시점까지의 기간은 평균 18개월이었다.

2) 측정도구

(1)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WHO(2005)에서 세계 10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언어적 폭력 2문항, 가해협박 2문항, 행동통제 7문항의 총 1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언어적 폭력은 '모욕적인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기고 창피를 주는 것'의 2문항, 가해협박은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부수면서 위협하는 것', '나와 관련된 사람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것'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통제는 '친구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친척식구들과 연락을 금지하는 것',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는 것', '정숙하지 못하다고 의심하는 것' 등이 포함된 7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서 지난 6개월간 남편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질문하고, '없었다'의 1점에서 '가끔 있었다' 2점, '자주 있었다' 3점, '매우 많이 있었다'의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우울

우울은 Beck, Steer 그리고 Brown(1996)의 BDI-I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해서 증상을 표현하는 4개의 진술문으로 되어 있다. 각

3) 이 자료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는 "가정폭력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의 장기효과 분석"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문항은 0-3점으로 측정하여 점수의 합은 0점에서 63점의 범위를 가지게 되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더 심한 것을 의미한다. Leiner, Compton, Houry, 그리고 Kaslow(2008)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94$ 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김명식, 이임순, 이창선(2007)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BSI-II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alpha=.8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제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 부부적응

부부적응은 Spanier(1976)가 개발한 부부적응척도(DAS: Dyadic Adjustment Scale)를 이민식과 김중술(1996)이 번역한 한국판 D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DAS는 일반적인 부부관계의 질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부부만족, 부부응집, 부부합의, 애정표현의 네 개 하위범주를 갖고 있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의 상이한 평정 척도 유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하위범주 별 문항수는 부부만족 10문항, 부부응집 5문항, 부부합의 13문항, 애정표현 4문항이다.

점수의 합계는 0에서 151점의 범위를 가지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panier(1976)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alpha=.96$ 이었고, 하위범주 별로는 $\alpha=.73$ 에서 $\alpha=.94$ 의 범위로 나타났다.

(4) 대처방식

대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1980)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 WCCL(Ways of Coping Checklist)을 Vitaliano, Russo, Carr, Maiuro 그리고 Becker(1985)가 42문항으로 축소하여 구성한 RWCC(Revised Ways of Coping Checklist)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대처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크게 능동적 대처방식과 수동적 대처방식으로 분류된다. 능동적 대처방식은 문제해결과 도움찾기의 2개의 하위유형을, 수동적 대처방식은 자기비난, 회피, 소망적사고의 3개의 하위유형을 갖고 있다. 문항 수는 문제해결이 15문항, 도움찾기 6문항, 자기비난 3문항, 회피 10문항, 소망적 사고 8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없다'의 1점에서부터 '자주 있다'의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한다. Lee, Pomeroy, 그리고 Bohman(2007)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척도의 하위차원별 신뢰도는 $\alpha=.67$ 에서 $\alpha=.84$ 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폭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적응 및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의 PLS(Partial Least Square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LS 분석은 주성분을 바탕으로 한 방법으로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설명력(R^2)을 최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PLS 분석은 공분산을 이용한 분석 방법들에 비해 제한점들⁴⁾을

갖고 있으나 자료의 성격과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PLS의 주요 특징은 자료의 정규분포성 가정이 필요 없으며,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에 반영적(reflective)인 관계뿐 아니라 형성적(formative)관계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 크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형의 검증보다는 인과관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여 아직까지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탐색적인 연구에 보다 적합하다(Fornell and Cha, 1994; Chin and Newsted, 1999).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PLS 분석방법이 적합한 이유는 첫째, 사례 수가 77개로 다른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다. 하지만, Chin(1998)이 PLS 방법으로 분석시 필요한 사례수를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의 모형은 70개 이상의 사례수로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정서적 폭력의 순수한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부족하고 정서적 폭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적응과 대처의 매개경로를 탐색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는 smartPLS 2.0 M3⁵⁾를 이용하였다.

5.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총 77명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가계월수입, 직업, 거주지역, 종교, 동거하는 가족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18명(23.7%), 40대가 35명(46.1%), 50대가 20명(26.3%), 60대가 3명(3.9%)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42명(57.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 또는 대졸이 15명(20.6%)으로 많았고, 중졸 이하는 13명(17.8%), 대학원 졸업은 3명(4.1%)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계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5명(11.1%),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가 10명(22.2%),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20명(44.4%)이었고,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가 5명(11.1%), 400만원 초과는 5명(11.1%)이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업주부이거나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명(44.1%)이었고,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명(51.5%), 기타가 3명(4.4%)이었다. 직업 종류로는 피고용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3명(19.1%)으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자영업업을 하는 사람이 11명(16.2%)으로 이 두 직종이 전체 직업이 있는 경우에서 약 70%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경기, 서울, 호남, 영남이 각각 17명(23.0%), 16명(21.6%), 14명(18.9%), 13명(17.6%)이었고, 나머지 충청, 강원, 제주 지역이 14명(19%)으로 전국의 지역에서 연구 대상자가 골고루 추출되었음을 보여준다. 연구 대상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는 4명이 32명(41.6%)으로 가

4) PLS 분석의 주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오차가 통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다른 구조방정식 추정치에 비해 잠재변수들 간의 계수는 작게, 잠재변수와 측정지표 간의 계수는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표본이 크고, 잠재변수 당 측정지표의 수가 커질수록 참값에 근접하게 되어 문제가 사라진다(Haenlein and Kaplan, 2004에서 재인용). 둘째, 전체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할 수 없다. 셋째, 경로에 제약을 가할 수 없다(Gefen, Straub and Boudreau, 2000).

5) smartPLS는 2005년, 독일 Hamburg 대학의 Ringle, Christian, Marc/Wende, Sven/Will, Alexander에 의해 개발된 PLS 분석을 위한 software이다. 출처: <http://www.smartpls.de>

장 많았고, 3명이 23명(29.9%), 5명 이상이 14명(18.2%)의 순이었으며, 1명 또는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명(10.4%)이었다.

2) 주요 변수의 실태

먼저, 정서적 폭력의 유형에 따라 발생 유무와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자가 지난 6개월간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명으로 28.6%인 반면, '있었다'('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 포함)고 응답한 사람은 55명으로 전체의 71.4%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이후 남편의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경우에도 많은 남편들이 여전히 정서적 폭력을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50명(64.9%)으로 가장 많았고, 행동통제가 33명(42.9), 가해협박이 가장 적은 20명(26%)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의 발생 실태를 통해서 볼 때 정서적 폭력 가운데 언어폭력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유형이고 또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정서적 폭력의 유형별 발생 실태

	n=77		평균(표준편차)
	있음 명 (%)	없음 명 (%)	
정서적 폭력 전체	55(71.4)	22(28.6)	.384(.510)
언어폭력	50(64.9)	27(35.1)	.688(.739)
가해협박	20(26.0)	57(74.0)	.240(.535)
행동통제	33(42.9)	44(57.1)	.224(.462)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우울은 전체 점수의 합을 산출하였을 때 0점에서 63점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점수의 평균은 7.454이었다. 또한 Beck 등(1996)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BDI-II의 총점이 0-13점은 '우울 증상 거의 없음'(Minimal), 14-19점은 '경미한 우울'(Mild), 20-28점은 '중간 정도의 우울'(Moderate), 29-63점은 '심각한 우울'(Severe)로 평가된다. 이 기준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표 3>과 같이 연구 대상자 가운데 경미한 우울을 포함하여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은 19명(24.7%)으로 이들은 모두 남편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편의 정서적 폭력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우울 증상이 거의 없음'에 속하여 정서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을 야기하는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정서적 폭력 유무와 우울의 정도

우울 정도(우울 점수범위)	정서적 폭력		계
	없음	있음	
우울 증상 거의 없음 (0점 - 13점)	22명	36명	58명(75.3%)
경미한 우울 (14점 - 19점)	0	7명	7명(9.1%)
중간 정도 우울 (20점 - 28점)	0	8명	8명(10.4%)
심각한 우울 (29점 -63점)	0	4명	4명(5.2%)
계	22명	55명	77명(100%)

부부적응은 전체 점수의 합을 이용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Crane, Allgood, Larson 그리고 Griffin(1990)은 이 척도를 사용한 임상연구를 통해서 부부적응의 합계가 107점 이상이면 대체로 부부관계 스트레스가 없는 부부로, 107점 미만은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부부관계의 질을 평가하였을 때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 가운데 82.2%인 60명이 부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로 나타났고, 17.8%인 13명이 부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정서적 폭력이 있는 아내들은 총 52명 중 96%인 50명이 부부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폭력이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됨을 말해주고 있다.

〈표 4〉 정서적 폭력 유무와 부부관계의 스트레스

부부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부부적응 점수범위)	정서적 폭력		계
	없음	있음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 높음 (0점 - 106점)	10명	50명	60명(82.2%)
부부관계에서 스트레스 낮음(107점 - 151점)	11명	2명	13명(17.8)
계	21명	52명	73명(100%)

3)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모형은 PLS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다른 구조방정식 모형과 마찬가지로 PLS 모형에서도 각 잠재변수들과 그들의 지표들간의 관련을 보여주는 측정의 구성요소인 외부모형(측정 모형)과 잠재변수들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구조적인 부분인 내부모형(구조모형)으로 이루어져있다. PLS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잠재변수들은 실제 지표의 선형 복합으로 계산된 값(latent variable score)으로 대치된다. 따라서 PLS 분석에서는 먼저 각 잠재변수에 대한 개별값을 구하고, 이 개별값들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결정하게 된다(Fornell and Bookstein, 1982).

(1)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을 PLS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과 측정 설문 문항들의 신뢰성과 개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변수별 개별항목 신뢰도(individual item reliability),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먼저, 개별항목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련된 설문 항목들의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으로 평가되며, 문항의 요인 적재값은 0.7 이상의 경우 개별항목 신뢰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내적 일관성은 종합요인 신뢰성 지수(composite scale reliability index)를 이용하여 지수값이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그리고 판별 타당성은 추출된 평균분산(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교차요인 적재값으로 평가할 수 있다. AVE값은 잠재변수의 총 분산이 각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로서 측정변수 총 분산의 50%이상이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요구한다(Chin, 1998). 따라서 AVE의 제공된 값을 사용하였을 때 이 값이 0.7 이상이어야 한다. 판별 타당성의 또 다른 평가인 교차요인 적재값(cross factor loading)은 각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값이 다른 요인과의 교차요인 적재값보다 높아야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Barclay, Higgins and Thompson, 1995; Chin, 1998).

본 연구의 변수들 중 우울은 1차 요인구조, 정서적 폭력, 부부적응, 능동대처, 수동대처는 2차 요인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폭력과 부부적응, 능동대처, 수동대처의 1차 요인변수에 대해서 개별항목 신뢰도, 내적 일관성, 판별 타당성을 분석한 후 산출된 잠재변수 값(latent variable score)을 다음 단계인 2차 요인 변수의 단일 측정치로 간주하여 사용하게 된다. 먼저, 정서적 폭력의 1차 요인 변수의 분석 결과 각 요인의 개별 문항의 요인 적재값이 모두 0.7이상이며 다른 요인에 대한 교차요인 적재값보다 크게 나타나 언어폭력, 가해협박, 행동통제의 측정 문항들이 개별항목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부적응의 1차 요인변수의 분석 결과, 각 요인에서 요인 적재값이 기준치인 0.7 미만으로 나타난 부부만족의 4개 항목, 부부응집의 1개 항목, 애정표현의 2개 항목이 제거되었고, 나머지 개별 항목의 요인 적재값은 0.7 이상이며 다른 요인에 대한 교차요인 적재값보다 크므로 이 항목들은 부부만족, 부부응집, 부부합의, 애정표현의 개별항목 신뢰성을 충족시켰다. 능동대처와 수동대처의 1차 요인변수의 분석결과, 개별항목 가운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문제해결의 9개 항목, 회피의 6개 항목, 소망적 사고의 4개 항목이 제거되었고, 문제해결의 2개 항목과 회피의 1개 항목은 0.7보다 낮았으나 0.6 이상으로 0.7에 근접하였고 다른 요인과의 요인 적재값보다 크게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⁶⁾.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은 종합 신뢰도로 알 수 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 신뢰도의 값이 모두 0.7을 초과하였으므로 내적 일관성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평

6) 개별항목의 요인 적재값은 일반적으로 0.7 이상이 권장되고 있으나(Fornell and Larcker, 1981), 사례수가 적을 때에는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할 때에는 원래의 문항들을 가능한 보존하고 같은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Barclay 외, 1995; Yoo and Alavi, 2001).

균 분산(AVE)의 제곱근 값은 0.714에서 0.958로 나타나 모두 0.7을 초과하였고, 교차요인 적재값에서 다른 요인과의 상관보다 높았으므로 판별 타당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6> 정서적 폭력, 부부적응, 능동대처, 수동대처의 1차 요인변수들의 내적 일관성 및 판별 타당성 분석

	종합 신뢰 도	평균분산(AVE)의 제곱근값											
		언어 폭력	가해 협박	행동 통계	부부 만족	부부 응집	부부 합의	애정 표현	문제 해결	도움 찾기	자기 비난	회피	소망 사고
언어폭력	.938	.940											
가해협박	.931	.655	.933										
행동통계	.967	.502	.756	.911									
부부만족	.941	-.641	-.447	-.384	.852								
부부응집	.978	-.396	-.189	-.185	.704	.958							
부부합의	.973	-.418	-.098	.044	.703	.651	.855						
애정표현	.925	-.380	-.268	-.403	.235	-.045	.006	.928					
문제해결	.872	-.235	-.061	.022	.286	.179	.394	-.072	.731				
도움찾기	.898	.005	.023	.015	.122	.230	.265	-.033	.420	.772			
자기비난	.845	.241	.291	.334	-.152	.029	.082	-.207	.115	.189	.803		
회피	.806	.324	.324	.351	-.235	.211	.113	-.400	-.250	-.157	.372	.714	
소망사고	.885	.294	.333	.227	-.173	.148	.008	-.153	.047	.203	.322	.470	.812

다음으로, 1차 요인변수들에서 산출된 잠재변수 값을 2차 요인변수의 단일 측정치로 간주하여 2차 요인변수에 대해서도 위의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2차 요인변수이며 최종 변수인 정서적 폭력, 부부적응, 능동대처, 수동대처, 우울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개별항목 신뢰도, 내적 일관성, 판별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부부적응의 하위차원인 애정표현은 부부만족과의 교차요인 적재값이 더 높게 나타나 제거되었고, 우울의 개별항목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개 항목이 제거되었다. 자기 비난과 우울의 2개 항목은 0.7의 기준에 못 미쳤으나 0.6 이상으로 0.7에 근접하였고 다른 요인과의 교차요인 적재값보다 크므로 개별항목 신뢰도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7>은 연구모형의 최종변수인 정서적 폭력, 부부적응, 능동대처, 수동대처, 우울에 대한 내적 일관성과 판별 타당성의 분석 결과이다. 종합신뢰도는 최소 0.810으로 기준치인 0.7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평균분산(AVE)의 제곱근 값에서는 0.768에서 0.888의 범위로 나타나 기준치인 0.7이상이었으며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 계수보다 높으므로 판별 타당성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표 7> 최종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 및 판별 타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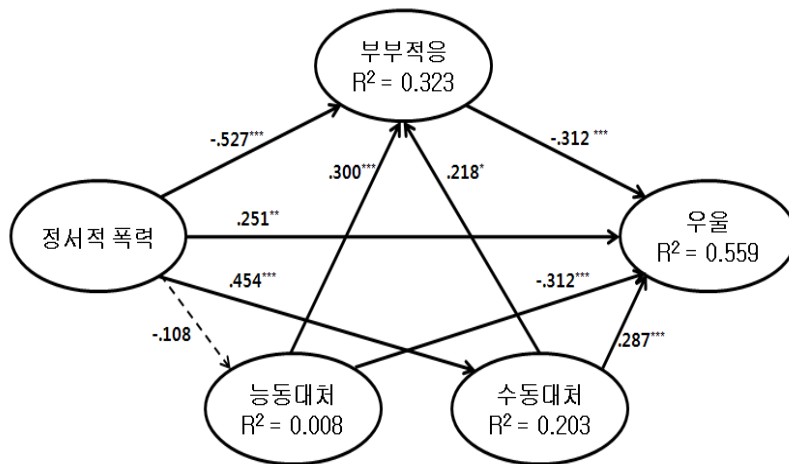
	종합 신뢰도	평균분산(AVE)의 제곱근값				
		정서적폭력	부부적응	능동대처	수동대처	우울
정서적 폭력	.902	.869				
부부적응	.918	-.443	.888			
능동대처	.821	-.087	.338	.836		
수동대처	.810	.450	-.026	-.035	.768	
우울	.967	.544	-.537	-.449	.411	.778

(2)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모형인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서적 폭력은 우울을 높이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적응과 수동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적응과 수동대처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능동대처의 경우, 정서적 폭력이 능동대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우울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설명력(R^2)을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폭력은 능동대처와 수동대처에 각각 0.8%와 20.3%의 설명력을 보였다. 부부적응에 대해서는 정서적 폭력과 능동대처, 수동대처가 부부적응에 32.3%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정서적 폭력, 부부적응, 능동대처, 수동대처는 우울의 5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남편의 정서적 폭력이 높을수록 아내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의 정서적 폭력이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의 정서적 폭력은 아내의 능동적 대처방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수동적 대처방식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부적응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부적응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처방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수록 우울이 낮았으며, 수동적으로 대처할수록 우울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아내의 대처방식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능동적 대처방식과 수동적 대처방식은 모두 부부적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능동적 대처방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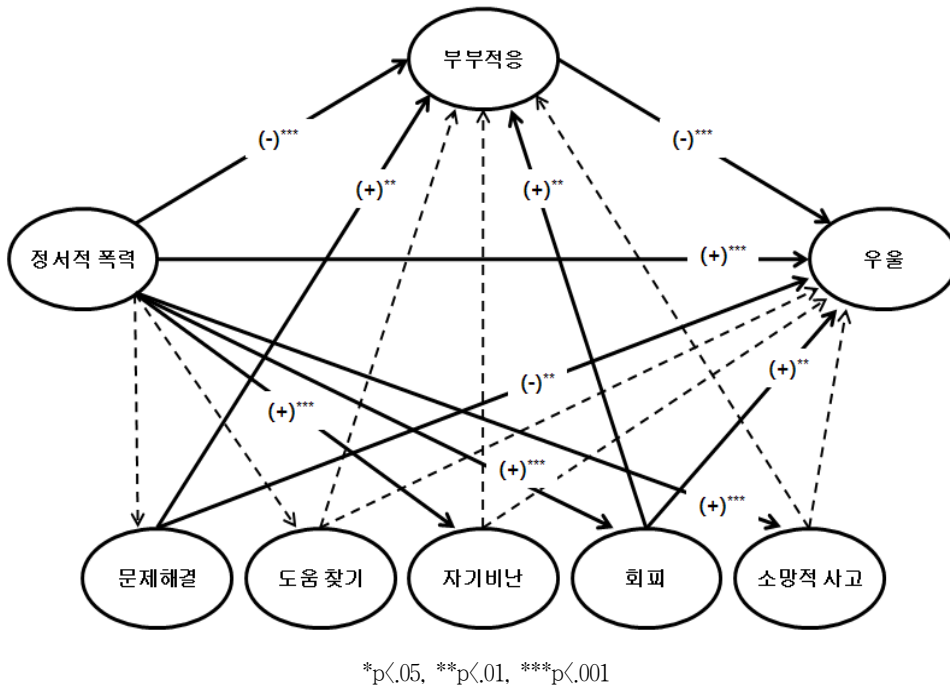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연구모형의 검증

4) 대처 하위차원 모형의 검증

앞서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남편의 정서적 폭력과 아내의 우울의 관계에서 수동적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고, 능동대처는 정서적 폭력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능동대처와 수동대처가 모두 부부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보다 세분된 분석이 요구된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대처방식을 하위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위유형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능동대처와 수동대처의 하위유형인 능동대처의 문제해결과 도움찾기, 수동대처의 자기비난, 회피, 소망적 사고의 다섯 개 요인을 잠재변수로 하여 PLS 분석 절차에 따라 모형을 재분석하였다.



〈그림 2〉 대처방식 하위차원 모형의 검증

분석 결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적 폭력은 문제해결과 도움찾기에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 자기비난, 회피, 소망적 사고의 세 유형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연구모형 검증에서 정서적 폭력이 능동대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동대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부적응과 우울에 대한 경로에서는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능동대처 가운데 부부적응과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하위유형은 문제해결이었으며, 도움찾기는 부부적응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수동대처 가운데 부부적응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유형은 회피방식이었으며, 나머지 자기비난과 소망적 사고는 부부적응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능동대처는 문제해결 대처방식이, 수동대처는 회피 대처방식만이 부부적응과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 유의성을 나타내 문제해결과 회피가 주요한 대처방식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문제해결과 회피는 비록 상반된 방식이지만 둘 다 부부적응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반해 회피는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회피 대처방식은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먼저, 연구대상자의 71%(55명)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언어폭력, 가해에 대한 협박, 행동 통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여서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이후에도 여전히 정서적 폭력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여성부(2008)가 실시한 2007년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정서적 폭력(언어폭력, 가해협박) 발생률 26.4%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둘째, 남편의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아내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선행연구들(Vitanza et al., 1995; Dienemann et al., 2000; Kocot and Goodman, 200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남편의 정서적 폭력과 아내의 우울의 관계에서 부부적응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남편의 정서적 폭력은 부부관계의 질적 저하를 통해서 아내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정서적 폭력은 그 자체만으로 아내에게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정서적 폭력 피해 아내가 경험하는 문제는 보다 복합적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부부관계로서 서로에게 가장 의미가 큰 대상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관계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질은 결혼생활과 개인의 정신건강에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아내의 우울을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부부불화-우울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다.

넷째,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아내일수록 수동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적인 대처는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처방식의 하위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수동적 대처방식 중에서도 회피방식이 유일하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능동적 대처방식은 정서적 폭력으로부터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능동적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우울이 감소하여서 능동적 대처방식이 정신건강에 더 유익한 대처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아내폭력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폭력 피해 여성들이 수동적인 대처를 하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경험할 때 상황과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통제력이 손상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Walker, 1984). 또한 Roth와 Cohen(1986)은 통제가 불가능

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부인(denial)하는 대처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폭력 피해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폭력 피해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은 남편의 폭력을 중단시키는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지속시킨다는 연구결과(Goodman, Dutton, Vankos and Weinfurt, 2005)도 폭력 피해 아내들이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준다.

다섯째, 대처방식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능동대처와 수동대처는 모두 부부적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처방식의 하위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능동대처의 문제해결 대처방식과 수동대처의 회피 대처방식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문제중심의 대처가 부부만족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회피하는 대처방식은 부부만족이나 부부관계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부부갈등시 여성의 대처하는 방식과 우울의 관계에 관해서는 Jack(1991; Whiffen, Foot and Thompson, 2007에서 재인용)이 자기침묵 모델(Silencing the self model)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여성들은 의미있는 대상, 특히 배우자와 갈등이 없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높다고 가정하고, 그들은 갈등관계에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침묵함으로써 관계를 조화롭게 지속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기침묵은 자기소외감을 가져오고, 이러한 노력이 헛되었다고 느낄 때 우울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Whiffen 등(2007)은 이 모델을 적용한 연구에서 자기침묵은 폭력이 있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이며, 아내는 분노 감정을 감추고 남편의 의견이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가장하지만 결국 우울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Whiffen 등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정서적 폭력 피해 아내가 부부관계에서 회피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부부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남편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등의 행동으로 부부간 충돌을 줄임으로써 표면적으로 부부적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억압된 평화는 개인적 측면에서 우울을 증가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부부관계 측면에서는 비록 단편적일지라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폭력 피해여성의 대처방식과 부부적응의 관계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결과인 만큼 회피 대처방식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심도있는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특별법에 정서적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제2조제1호)하여서 정신적 피해를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제2조제3호)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형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형법 제2편에서 정서적 폭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협박과 명예훼손이 있으나 부부간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정폭력특별법의 목적(제1조)이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상기할 때 정서적 폭력은 가정폭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정서적 폭력은 긴급하게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정신건강과 부부관계를 해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과 신고 및 처벌이 모두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에서의 정서적 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정서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아져서 가해자가 폭력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수용하고 있지만,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부갈등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가해자가 아무런 책임성을 갖지 않고, 피해자가 받는 부정적 영향이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정서적 폭력이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증진하고, 피해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정서적 폭력에 대한 책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행위자 프로그램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행위자 프로그램 종료 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추후 상담을 받은 사람은 남편 7명(9.1%), 아내 1명(1.3%)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행위자 부부들이 남편의 상담위탁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담소를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담소와 관계가 단절되면 이후 신체적 폭력이 재발생하더라도 사법적 절차가 없는 한 상담소와 다시 연계될 기회가 없다. 더구나 정서적 폭력의 경우 법적 처벌이 없으므로 피해에 대한 파악조차 어렵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는 남편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변화된 태도와 행동이 뿌리내리도록 모니터링 함으로써 남편의 재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인 아내가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서적 폭력이 있는 부부에 대한 개입에서 대처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는 아내는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표면적으로 부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이나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폭력이 있는 부부관계의 역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사용하는 대처방식을 주의깊게 점검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나 대처방식을 개선하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명식·이임순·임창선. 2007. “한국판 BSI-II의 타당화 연구 I: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997-1014.
- 김재엽. 2007.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 김홍미리. 2006. “아내폭력의 개념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1차. 한국여성전화연합.
- 여성부. 2007.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여성부. 2008. “2007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이민식·김중술. 1996. “부부적응척도(DAS)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15: 129-140.
- 이정연. 2003. “부부폭력 개입 프로그램의 과정평가와 추후평가”.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2(5): 647-658.
- 장문선·김영환. 2003. “기혼여성 우울증 환자의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의사소통패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 임상』 22(2): 399-414.
- 최선령. 2001. “한국 아내학대자의 학대행동감소를 위한 인지행동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275-311.
- 홍창희·박유숙. 2001.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심리과학연구』 2: 1-20.
- Babcock, J. C., J. Waltz, N. S. Jacobson, and F. M. Gottman. 1993. “Power and violence: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power discrepancies, and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40-50.
- Barclay, D., C. Higgins, and R. Thompson. 1995. “The partial least squares (PLS) approach to causal modeling, personal computer adoption and use as an illustration”. *Technology Studies* 2(2): 285-309.
- Beach, S. R. H., E. E. Sandeen, and K. D. O’Leary. 1990. *Depression in marriage: A model for etiology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Beach, S. R. H., J. Katz, S. Kim, and G. H. Brody. 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Beck, A. T., R. A. Steer, and G. K. Brown. 1996.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ouchard, G., Y. Lussier., J. Wright, and C. Richer. 1998. “Predictive validity of coping strategies on marital satisfactio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1): 112-131.
- Bradbury, T. N., F. D. Fincham, and S. R. Beac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64-980.
- Burgess, E. W., and Jr. L. Cottrell. 1939.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New York: Prentice-Hall.
- Calvete, E., S. Corral, and A. Estévez. 2008. “Coping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Violence Against Women* 14(8): 886-904.
- Carlson, B. E., L. McNutt, D. Y. Choi, and I. M. Rose. 2002. “Intimate partner abuse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other protective factors”. *Violence Against Women. Special Issue: Health Care and Domestic Violence* 8(6): 720 - 745.
- Chin, W. W. 1998. “Issues and opinion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IS Quarterly* 22(1): 7-16.
- Chin, W. W., and P. R. Newsted. 199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ith small samples using partial least squares” In R. H. Hoyle(Ed.), *Statistical strategies for small sample research* (pp. 307-341). Thousand Oak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
- Coker, A. L., P. H. Smith, L. Bethea, M. R. King, and R. E. McKeown. 2000. “Physical Health Consequence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rch Fam Med*. 9: 451-457.

- Crane, D. R., S. M. Allgood, J. H. Larson, and W. Griffin. 1990. "Assessing marital quality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A comparison and equivalency table for three frequently used measur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7-93.
- Dempsey, M. 2002. "Negative coping as mediator in the relation between violence and outcomes: Inner-city African American yout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2(1): 102-109.
- Dienemann, J., E. Boyle, D. Baker, W. Resnick, N. Wiederhorn, and J. Campbell. 2000. "Intimate partner abuse among women diagnosed with depressio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1: 499-513.
- Dutton, M. A., L. A. Goodman, and L. Bennett. 1999. "Court-involved battered women's responses to violence: The role of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abuse". *Violence and Victims* 14(1): 89-104.
- Fine, M. 1992. *Disruptive voices: The possibility of feminist research*. Ann Arbor: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olkman, S., and R. S. Lazaru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 Folkman, S., and R. S. Lazaru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ollingstad, D. R., L. L. Rutledge, B. J. Berg, E. S. Hause, and D. S. Polek. 1990. "The role of emotional abuse in physically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07-120.
- Fornell, C., and D.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9-50.
- Fornell, C., and F. L. Bookstein. 1982.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LISREL and PLS applied to consumer exit-voic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4): 440-452.
- Fornell, C., and J. Cha. 1994. "Partial least squares". In R. P. Bagozzi(Ed.), *Advanced methods of marketing research*(pp.52-78). Cambridge, England: Blackwell.
- Gefen, D., D. W. Straub, and M. Boudreau. 20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Guidelines for research practic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4(7): 1-77.
- Gondolf, E. W. 2004. "Evaluating batterer counseling programs: A difficult task showing some effects and implicatio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6): 605-631.
- Gondolf, E. W., D. A. Heckert, and C. M. Kimmel. 2002. "Nonphysical abuse among batterer program participa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4): 293-314.
- Goodman, L., M. A Dutton, N. Vankos, and K. Weinfurt. 2005. "Women's resources and use of strategies a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reabuse over time". *Violence Against Women* 11: 311-336.
- Gregory, C., and E. Erez. 2002. "The effects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Violence Against Women* 8: 206-232.
- Haenlein, M., and A. M. Kaplan. 2004. "A beginner's guide to partial least squares analysis". *Understanding Statistics* 3(4): 283-297.

- Hendricks, B., T. Werner, L. Shipway, and G. J. Turinetti. 2006. "Recidivism among spousal abusers: Predictions and program evalu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03-716.
- Hollist, C. S., R. B. Miller, O. G. Falseto, and C. L. C. Fernandes. 2007.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 replication of the Marital Discord Model in a Latino sample". *Family Process* 46(4): 485-498.
- Jack, D.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ohnson, M. P. 1995.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2): 283-294.
- Kent, A., and G. Waller. 1998. "The impact of childhood emotional family environment: An extension of the Child Abuse and Trauma Scale". *Child Abuse and Neglect* 22(5): 393-399.
- Kocot, T., and L. Goodman. 2003. "The roles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battered women's mental health". *Violence Against Women* 9(3): 323-346.
- Lee, J., E. C. Pomeroy, and T. M. Bohman. 2007.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sychological health in a sample of Asian and Caucasian women: The role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8): 709-720.
- Leiner, A. S., M. T. Compton, D. Houry, and N. J. Kaslow. 2008.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icidality: A path model using data from African American women seeking care in an urban emergency department".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6): 473-481.
- Lempert, R. B. 1997. "The other side of help: Negative effects in the help-seeking processes of abused women". *Qualitative Sociology* 20(2): 289-309.
- Marshall, L. 1992. "Development of the severity of violence against women scal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1: 379-410.
- Mason, A., and V. Blankenship. 1987. "Power and affiliation motivation, Stress and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203-210
- O'Leary, K. D., J. Malone, and A. Tyree. 1994.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preresultship and relationship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3): 594-602.
- Rayburn, N. R., S. L. Wenzel, M. N. Elliott, K. Hambarsoomians, G. N. Marshall, and J. S. Tucker. 2005. "Trauma, depression, coping, and mental health service seeking among impoverished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4): 667-677.
- Roth, S. and L. J. Cohen.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7): 813-819.
- Sackett, L. A., and D. G. Saunders. 1999. "The impact of different forms of psychological abuse on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4(1): 105-117.
- Schumacher, J. A., A. M. Slep, and R. E. Heyman. 2001. "Risk factors for male-to-female partner psychological abus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 255-268.
- Schumacher, J. A., and K. E. Leonard. 2005. "Husbands' and Wives' marital adjustment, verbal aggression, and physical aggression as longitudinal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1): 28-37.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5-38.

- Stith, S. M., N. M. Green, D. B. Smith, and D. B. Ward. 2008.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discord as risk marke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149-160.
- Straka, S. M. and L. Montminy. 2008. "Family violence: Through the lens of power and control". *Journal of Emotional Abuse* 8(3): 255-279.
- Strauchler, O., K. McCloskey, K. Malloy, M. Sitaker, N. Grigsby, and P. Gillig. 2004. "Humiliation, manipulation, and control: Evidence of centrality in domestic violence against an adult partn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6): 339-354.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ial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75-88.
- Tolman, R. 1989.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of their male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4: 159-178.
- Tolman, R. 1999. "The validation of the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y". *Violence and Victims* 14: 25-38.
- Vitaliano, P. P., J. Russo, J. E. Carr, R. D. Maiuro, and J. Becker. 1985.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revision and psychometric properti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0(1): 3-26.
- Vitanza, S., L. C. M. Vogel, and L. L. Marshall. 1995. "Distres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0(1): 23-34.
- Waldrop, A. E., and P. A. Resick. 2004. "Coping among adult female victims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5): 291-302.
-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an syndrome". New York: Springer.
- Whiffen, V. E., M. L. Foot, and J. M. Thompson. 2007. "Self-silencing mediates the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6): 993-1006.
- Whisman, M. A. 2001.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In S. R. H. Beach (Ed.), *Marital and family processes in depression: A scientific foundation for clinical practice*(pp. 3-2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hisman, M. A., and M. L. Bruce. 1999. "Marital dissatisfaction and incidence of major depressive episode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74-678.
- WHO. 2005. www.who.int/en
- Yoo, Y. J., and M. Alavi. 2001. "Media and group cohesion: Relative influences on social presence, task participation, and group consensus". *MIS Quarterly* 25(3): 371-390.

Effects of Husbands' Emotional abuse on Wives' Depression: Focusing on the Wives whose Husbands had Completed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Chung, Yun-Kyu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usbands' emotional abuse on wives' depression and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and coping.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wives of men who had completed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at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center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among the 116 questionnaires collected by wives the cases in which physical violence was reported were excluded. Ultimately, a total of 77 cases were analyzed using the Partial Least Square method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methodology. The key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ives in this study showed a high rate of exposure to emotional abuse by their husbands although the physical violence was gone. Second, emotional abuse by husbands significantly affected depression on their wives. Third, marital adjustment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abuse and the depression. Fourth, a mediating effect from passive coping was revealed; in particular, avoiding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abuse and the depression. However, active coping faile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al abuse and the depression.

Key words: Emotional abuse, Depression, Marital adjustment, Coping,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논문 접수일: 09. 09. 24, 심사일: 09. 10. 06, 게재 확정일: 09. 10. 23]